



DEC 2025

VOL. 284

▲ 아름답고 멋진 형제들

형 강건영(왼쪽), 강주영은 쌍둥이 형제로 성서학과 1학년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동생은 다리가 불편한 형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늘 함께 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의좋은 형제가 고승태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웃는다. 형제의 깊은 우애가 예수님의 사랑과 잘 어울리며 캠퍼스를 아름답고 환히 밝혀주고 있다.

KÓKKOS 12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교목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호소

25-1학기, 결신 학우 35명 중 14명만 교회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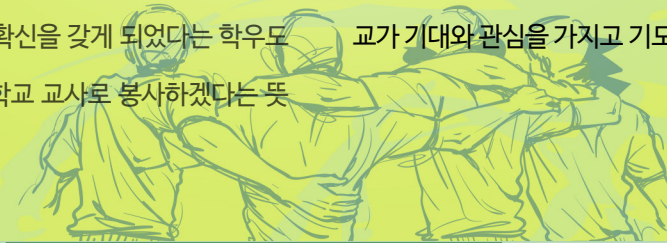
교목실은 11월 마지막 주간(24일~28일)에 25년도 1학기 3월, 신입생 대상의 전도집회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35명의 학우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35명 중 14명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13명은 교회 미출석 중이었다. 35명 중 5명은 휴학 중이었고 3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신학우 35명의 학과는 성서 3명, 사복 9, 영보 5, AI 11, 간호 7명이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응답한 14명 중 8명은 출석교회의 이름을 명확히 밝혔으며 나머지 6명은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회를 정하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학우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학우도 있었고 주위의 권유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뜻

이 있다고 밝힌 학우도 나왔다. 옥토에 떨어진 귀한 씨로 분명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교회 출석을 미루고 있는 13명의 학우들도 “교회에 가지”하는 마음은 있으나 알바 등 기타 이유로 못 나가는 학우와 한국성서대학에 입학한 후, 여러 신앙훈련과 신앙을 가진 친구를 통해 기독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는 학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신앙생활을 묻는 질문에 여러 과제와 학업량 부담 때문으로 아직은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고 반응한 학우도 있었다.

교목실 관계자는 “한국성서대학교라는 도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결국 그 속에서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면서 이들을 위해 온 학교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금대접에 담긴 것 요한계시록 5장8절

김웅기 목사(성서학과)

언젠가 20년 넘게 사용하던 만년필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마친 후에 너무 멋진 케이스에 고친 만년필을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귀한 것을 담아 보낼 때는 포장이나 케이스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너무 귀한 것이라서 아주 멋진 케이스에 담아두는 것이 있으신가요?

사도 요한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시립(侍立)해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금 대접에 담아 하

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모아 두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어서 금대접에 담아 두십니다.

가끔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드린 기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귀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 때까지 담아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리니셜교



각 학과 수시합격자 확보에 총력전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신입생 확보는 대학 생존의 문제

2026학년도 수시합격자 218명에 대한 유치·확보 캠페인이 학과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원자들은 6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지원자는 복수의 대학에 합격했을 수 있다.

각 전공은 지난 11월 7일 수시합격자 발표와 함께 합격자들에게 “왜 성서대학을 선택해야 하나?”를 설득하고 있다. 학과 교수들은 학과장 주도하에 하나가 되어 합격자들을 개별 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접촉하고 있다. SNS로 합격 축하 메시지 발송은 기본이고 12월 15일 등록일까지 OT, 예비 신입생 프리덤 강좌 안내까지 매력있는 일정 등을 안내하고 더 나아가 학과의 비전과 교육 환경까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합격자들은 오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등록 예치금 30만원을 본교에 납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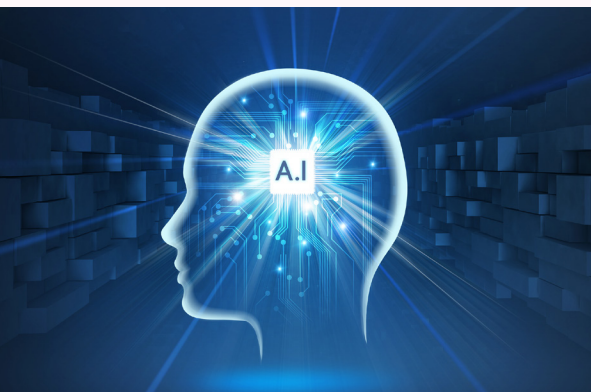
어떤 학과는 학과별 상황에 따라 1학기 장학금 증서를 발송하기도 하고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선배를 동원하기도 하며 우리 대학과의 연결 고리(밀알캠프 출신, 교역자의 자녀)를 찾아 관계 향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초 합격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다. 또 이들을 확보하는 것이 26년 2월 5일까지 이어질 길고 긴 ‘입학 포기-추가합격자 발표’라는 고난의 사이클을 단축하는 길이다. 이들의 최초 합격자 등록 여부가 신입생 충원율은 물론 재학생 충원율과 재학 중 휴·복학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한 마디로 대학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신입생을 확보하는 일은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이다.

“복음적 가치로 무장된 AI융합 인재”

대학원 AI융합학과 개설, 26-2학기



우리 대학원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해 갈 핵심 인재의 양성을 위해 일반대학원에 AI융합학과를 신설한다. 시기는 2026년 8월, 첫 학기는 5명 내외의 석사과정을 모집하게 되는데 12월 12일 교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개설하게 될 대학원 AI융합학과 세부 전공은 △인공지능전공 △AI융합전공 △AI빅데이터전공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전공 핵심과 필요 교과목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과정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학사·석사 연계 과정을 채택, 기존의 석사까지 6년을 5년(5.5년)으로 조기 취득도 가능하다. 본교생은 4학년 1학기에 우수 학생을 사전에 선발, 2학기에는 대학원 교과목을 최대 6학점까지 미리 수강하는 등의 우수 학생에 대한 유인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AI)의 진보가 모든 산업과 학문까지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사회가 복음적 가치로 무장된 AI융합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추진하고 있다.

2025-2학기 4학년 주관 예배

“받은 큰 사랑, 세상 속에 흘려보낼 것”



▲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이레 학우.

4학년 학우들이 사회와 기도, 말씀 및 간증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2학기 4학년 주관 예배가 11월 10일~21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12일 유이레 학우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16)로 말씀을 전했다. “형 에서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한다. 주를 잘 모르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른 채 방황하며 힘든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동행하며 지켜주신다. 그를 믿고 그와 함께 가는 형제자매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김소울(간호)학우는 17일 간증에서 우리 대학에 입학한 것은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었다. “FT, 기숙사 새벽기도, 채플, 등 다양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돼 감사하다. 의료선교가 막막했지만 교수님들의 삶과 가르침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 받은 큰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간증하였다.

간증 및 설교자는 다음과 같다(간증자 / 설교자와 설교제목)

- *10일(월) ▲유준하(사복) ▲남현모 ‘어렵다’(롬12:1~2)
- *11일(화) ▲정하영(영보) ▲박정우 ‘Position makes man?’(창41:37~45)
- *12일(수) ▲신지영(영보) ▲유이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16)
- *13일(목) ▲김인성(영보) ▲박예인 ‘정신차려 이각박한 세상 속에서’(단1:1~9)
- *14일(금) ▲김의준(컴소) ▲박윤경 ‘상처받은 치유자’(막5:25~34)
- *17일(월) ▲김소울(간호) ▲임주만 ‘혼자 견지 않을 거예요’(요3:1~21)
- *18일(화) ▲정윤하(간호) ▲박영수 ‘주여 제발’(요11:38~44)
- *19일(수) ▲유다혜(간호) ▲황광민 ‘우리가 주를 찾길 바랍니다’(시119:1~16)
- *20일(목) ▲정영주(간호) ▲안치우 ‘이제는 함께 가자’(마11:28~30)
- *21일(금) ▲이송아(간호) ▲박소연 ‘너는 특별하단다’(호11:1~12:6)

팔죽 봉사로 이웃 사랑 실천

달빛산책 황광민 최우수 서포터즈 수상



▲ 학우들이 팔죽 나누기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지역사회임팩트센터(센터장 장인순) 학우 11명은 12월 4일 서울시립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팔죽 나눔으로 감사하는 날’ 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팔죽을 지역 주민에게 나누고 감사 메시지 영상까지 촬영해 전하였다. 학우들은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어 주는 주민을 보고 보람을 느끼게 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원구가 주관한 2025년 노원달빛산책(10.17~11.16일)에 우리 학우 43명이 자원봉사로 참여, 작품을 관람하는 지역민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었다. 행사 종료 후 황광민(성서4)학우가 최우수 서포터즈로 김성한 국회의원상을 받았고 권민솔, 송다민(전원 사복2), 김동진(성서 1), 임건, 표현, 엄다야(전원 사복1), 학우가 노원문화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교수-학생 간 공동프로젝트’ 막바지

13개 연구논문 진행, 2개는 게재 확정

2025학년도 ‘학생-교수 간 공동 프로젝트’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는 79명의 학생과 13명의 교수자가 참여해 총 13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3개 팀 중 4개 팀이 논문을 완료, 투고하였으며, 이 중 장인순 교수(간호학과)팀과 김정원 교수(영유아보육학과)팀의 논문은 학회지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의 팀이 논문 작성 최종 단계에 근접해 있으며 12월 또는 1월 초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참여 학과는 성서학과 1팀, 영유아보육학과 2팀, 간호학과 6팀, 아동학부 2팀, 기초교양교육과 2팀이다.

우리 대학은 2022년부터 ‘학생-교수 공동 연구 사업’ 이름으로 ‘학술 연구형’과 ‘교재출판형’ 두 가지 형태의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학술 연구형’만 집중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KCI 등재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학생 저자에게는 1학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를 펼쳐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연구 경험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 14회 간호학술제 8편의 논문 발표

최우수 논문 김송현 학우팀
‘중년여성 ...행위에 미치는 영향’
전문 간호학술지에 게재!



▲ 김송현 학우가 연구 논문을 발표 중이다.

간호학과 ‘제14회 간호학술제’가 27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학술제는 김하진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 3학년 학우들이 팀별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최우수 논문은 김송현 학우팀이 연구한 ‘중년여성 근로자의 갱년기증상, 직장-가정 갈등,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선정됐다. 최우수 논문은 전문 간호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2학년 학우들이 참여한 보건교육 포스터는 김예빈 학우팀의 ‘40~50대 대상의 등산 안전 교육’이 최우수에 선정되었다.

장인순 교수는 논문 총평에서 “연구 주제가 취업 불안과 중도 탈락 의도, 기후 변화 및 스마트폰 중독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연구 필요성과 방법까지 잘 기술하였다. 부분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학문 역량을 잘 보여 준 학우들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격려했다. 최정권 총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정보는 순간적이고 충동적이지만 진리는 사색과 묵상을 갖도록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삶의 해답이라며 사색과 묵상, 진리 안에서 머물러 체험하고 성숙해지는 KBU 간호사가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간호학술제는 3학년 학우 42명이 8편의 학술논문을, 2학년 50명이 10편의 보건교육 포스터를 선보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 논문** : ‘중년여성 근로자의 갱년기증상, 직장-가정 갈등, e-헬스 리터러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지도교수 장인순 / 김송현, 구가영, 김동주, 이성희, 임아영, 전재경, 최예진)

▲ **최우수 보건교육 포스터** : ‘40~50대 대상 등산 안전 교육’(김예빈, 김지이, 김새은, 김예진, 김지원)

「무감독 시험」 비율 하락 추세

자칭 일류대도
AI 활용한 부정행위 곤혹



「복음전도자」의 자부심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 앞」(Coram Deo) 인재 양성을 위한 신앙훈련의 한 과정인 무감독시험이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무감독 시험 비율은 40%를 겨우 넘고 있으며 기말고사의 경우 30% 대로 추락하고 있다.

2024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67개 대상강좌(지필고사를 치르는 강좌) 중 무감독 시험은 65개 강좌(38.9%)였고 기말고사 167개 강좌 중 59개 강좌(35.3%)만 무감독 시험을 치렀다. 2학기는 중간고사 59개 강좌(41.3%), 기말고사 52개 강좌(38.5%)가 무감독 시험이었고 1학기에 비해 2.8% 떨어졌다.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62개 강좌(42.5%), 기말고사에서는 57개 강좌(39.3%)가 무감독이었다. 2학기에는 중간고사에서 62개 강좌(41.1%), 기말고사에서 56개 강좌(38.1%)가 무감독으로 치렀다. (표 참조) 학과별 무감독시험 비율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AI 1학년 포함) 0%, 사회복지학과 17.6%, 간호학과 21.7% 순이었다.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험에서 챗GPT·제미나이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된 이래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터 이달까지 전국 49개 대학에서 총 22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고 실제 부정행위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2025-11-24)

이에 대해 대학 등 교육 당국은 빗나간 인성을 바로잡는 노력은 제쳐 두고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등 대증치료에 국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줄곧 지향해 온 「하나님 앞」(Coram Deo)에 선 정직한 인재 양성의 교육목표가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다.

구분	총 강좌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상(지필)		감독		무감독		대상(지필)		감독		무감독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강좌수	비율
2024/1	202	167	82.7	102	61.1	65	38.9	167	82.7	108	64.7	59	35.3
2024/2	197	143	72.6	84	58.7	59	41.3	135	68.5	83	61.5	52	38.5
2025/1	202	146	72.3	84	57.5	62	42.5	145	71.8	88	60.7	57	39.3
2025/2	192	151	78.6	89	58.9	62	41.1	147	76.6	91	61.9	56	38.1

일립신학연구소 학술세미나

강병훈 교수
「귀도 드 브레의 종교개혁」



▲ 강병훈 교수가 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일립신학연구소(소장 조현진) 제 23회 학술세미나가 5일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조현진 교수의 사회로 강병훈 교수(충신대 역사신학)가 「귀도 드 브레(Guy de Bres, 1522~1567)를 통해 보는 종교개혁의 본질」로 세미나를 이어갔다.

강 교수는 칼빈은 거짓교회에서 떠나지 못할 상황이라면 박해를 감내하라고 말했는데 이를 실천한 인물이 귀도 드 브레(Guy de Bres, 1522~1567)이다. 드 브레는 성경 말씀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에게 종교개혁이란 참 교회 안에서 바른 예배를 갖는 것이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의식과 권세, 권위 중심 등을 추구하는 것은 거짓 예배라고 질타하면서 박해받는 성도를 섬기는 삶을 이어갔다. 그는 목회자로서 안락한 삶도 포기하고 성도들이 참 교회에 맞는 바른 예배에 힘쓰다가 로마교회로부터 순교를 당하게 된다. 강 교수는 「거짓 예배를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드 브레와 성도들을 통해 종교개혁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자」고 말했다.

총학생회장단 후보 사퇴

총학생회

제 42대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일 2026학년도 제 4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김시훈, 김대현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다.

선관위는 새로운 회장단 선거 일정을 마련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배들의 경험담과 현장의 팁



▲ 재학생과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복인의 밤

'사복인의 밤' 행사가 6일 오후 7시 로고스홀에서 사회복지학과 누리학회 주최로 열렸다. 만찬과 레크리에이션 및 동문 토크쇼와 장기 자랑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신앙의 가치 위에 전문성을 더한 실력자로 거듭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돌봄과 나눔을 실천해 달라"고 격려해 주었다.

동문 선배들이 현장 경험담과 사복인에게 적합한 팁 등으로 관심을 일으켰고 학창 시절 비밀 커플 컨셉으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이 많은 재미와 유쾌함을 전했다. 재학생과 동문 등 80여 명이 함께 하였다.

영리하게, 보람차게 밤새도록 추리하라



▲ 대상을 차지한 첼럼 학회

영보인의 밤

'영보인의 밤'이 25일 저녁 로고스홀에서 '영리하게, 보람차게, 밤새도록 추리하라, CLUE!'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명자로 신분을 잊지 않는 영보인이 되어달라"고 격려하였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조별로 열정을 쏟아낸 무대가 모두에게 경쾌함을 안겼고 'Mystery Stage'에서 신나고 경쾌한 댄스와 끼를 선보인 첼럼학회가 대상을 차지했다. 동문(25명)과 재학생 등 140여 명이 참가했으며 푸짐한 경품과 스탬프 챌린지 추첨이 참가자 모두에게 웃음꽃을 피워준 '영보인의 밤'이 되었다.

대상 최 린, '숫자 물고기 낚시'

영보학과 교구경진대회, 41점 출품



▲ 대상 수상작 '숫자 물고기 낚시'

영보학과 교구경진대회

영유아보육학과(학과장 김정원)의 2025학년도 총장배 교구경진대회가 25일 고승태홀에서 진행되었다. 2학년 학우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교육 효과를 접목한 41개 작품(개인 30, 팀별 11)이 전시되었다. 개인 부분 대상에 최린 학우의 '숫자 물고기 낚시'가 선정됐고 팀 대상은 '글자 착! 꼬치 썩~'을 만든 '김서현, 손슬비, 최영주' 팀이 받았다.

이 밖에도 김지수 학우의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계 옷장'이 개인 금상, 팀 부분은 '민수의 농장 먹이 배달'을 출품한 '오예빈, 한다인, 황연주' 팀이 차지하였다. 모두 2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8회 세계직장선교대회 주제 '가서 제자 삼으라'(롬 16:1~6)

2025년 '제8회 세계직장선교대회'(회장 박상수)가 29일 오전 본교 로고스홀에서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등 5개 직장선교기관과 선교사가 참석해 진행되었다.

'가서 제자 삼으라'(롬 16:1~6)를 주제로 1부 예배, 2부 특강 및 선교 발표, 기도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교 최정권 총장이 '사람 복음의 열매'(롬 16:1~6)로 말씀을 전했다. "로마서는 선교를 목적으로 복음의 뿌리, 교회의 줄기, 사람의 열매로 구성되었다. 복음은 신분과 성별 배경을 넘어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며 삶을 통해 변화시켜 준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서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나그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원, 포천 땅 추가 매입 계획

상·하부저수지 잇는
지하 터널 조성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5년 10월 말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학교 땅 약 1만2천 평을 추가로 매입하고, 약 9천 평은 장기 임대할 계획이 있다고 알려졌다.

한수원은 상부저수지에서 하부저수지까지의 지하 터널을 뚫을 계획인데 이 터널이 학교 땅 지하를 지나가게 되어 추가 매입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 지하 터널 중간지점에 발전기가 위치하는데 물 공급과 배출관이 자리하고 차량까지 통행할 2차선 규모의 넓은 지하 터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보상가는 약 3억 4천만 원(24년도 보상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료가 추가 된다.

최정권 총장 왕십리교회 부흥사경회 인도



▲ 왕십리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정권 총장.

최정권 총장은 11월 12부터 14일까지 왕십리교회(담임 맹일형)에서 부흥사경회(저녁 7시)를 인도하였다. 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최 총장은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삶 속에 온전히 행하고 매 순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 줄 것"을 전하였다.

12일: '예배, 하나님의 신비'(삼상 2:12~21)

13일: '믿음, 하나님의 선물'(롬 4:16~25)

14일: '기도 하나님의 약속'(눅11:1~13)

왕십리교회는 올해 교회설립 120주년(1905년)을 맞은 오랜 역사의 교회이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성탄과 새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코코스 편집실]

보내야 하나? 아니 보내도 될까?



최정권 총장

연말을 지나면서 고민이 되었던 건 기부금을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9월이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 겨울에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보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보낸 사람만 가슴 앓이를 하는 현실이 싫었을 겁니다. 더 솔직한 마음은 제 자존심이 상쳐받는 게 싫었을 겁니다. 그 래도 용기를 내서 카톡으로 네 교회 담임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1. 연말에 소식 전하면서 복음 전도자를 세상에 각 분야에 보내고 있는 저희 대학을 기억해 주십사하고 연락드립니다.

2. 한국 기독교 대학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지난 73년 동안 복음의 일꾼을 키워 온 저희 대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학입니다. 작년에 사융합 학부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3. 교회의 도우심을 감사드리고 연말이나 연초에도 성서대학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목사님 제가 총장이 되고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버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교회는 미국 서부 앨버틴 베엘교회와 동부 워싱턴 열린문장로교회 그리고 수영로교회와 충현교회로 보냈습니다. 세 곳은 이미 지난번 많은 도움을 주신 교회들이고 베엘교회만 새롭게 보낸 교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연애편지라는 걸 써봤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을 기억하는데 ‘아름답고 맑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미숙이었습니다. 그날 떨리는 손으로 우체통에 보낸 편지의 답장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답장이 오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에 정말 미숙이가 내 편지를 봤는지? 혹시 잘못 배달된 게 아닌지? 중간에서 미숙이 식구들이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그때 중2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간절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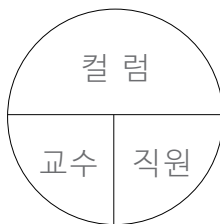
미숙이 편지는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교회 네 곳 다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두 교회는 확실히 돕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두 교회는 이미 예산 배정이 끝났지만 당회에서 의논하고 알려 주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교제하던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미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기부금이 달러가 강세인 요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학의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한 고개 넘어가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는 총장의 자리지만 우리 대학은 잘 넘어가고 잘 이겨갈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총장의
편지



오은주 교수(기초교양교육과)



이소연 계장(교학팀)

언러닝(Unlearning)의 영성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익숙한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배우는 일—언러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최근의 작은 경험인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그 학생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AI 학습 도구, '펑톡(PengTalk)'으로 공부해 보자고 했습니다. 호기심도 있고, 아이의 제안이 귀여워서 흔쾌히 함께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 발음 평가, 문장 연습, 생활영어, 자유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아이에게 직접 설명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아이와 AI가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배우도록 옆에서 안내해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아이의 발음과 자신감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교육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10년 후 대학에 오면, 우리는 AI와 함께 자란 ‘AI 네이티브’ 세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세대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저 같은 교육자도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하는 언러닝의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예레미야와 호세아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고, 로마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언러닝은 단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AI 시대의 변화 앞에서 저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배워야 할까? 그 질문을 품고, 오늘도 작은 배움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반 고흐의 길 위에서

지난 여름, 생애 첫 유럽 여행길에 나섰다. 프랑스 파리에 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에 반고흐가 마지막까지 머물던 오베르 쉬르 우아즈(Auvers-sur-Oise) 마을이 있다. 이곳은 반 고흐 루트(Van Gogh Walking Trail)라고 불리며 ‘오베르의 교회’(1890)와 ‘까마귀 나는 밀밭’(1890)의 배경 된 곳이며 동생 테오와 함께 묻힌 묘지가 있다(지금은 빈 무덤이라고 한다).

나는 반고흐의 그림 중에서 ‘까마귀 나는 밀밭’을 제일 좋아한다. 노랗게 익은 밀밭과 세 갈래 길 위의 짙은 초록 풀, 밝은 듯 어두운 하늘 색채의 대비가 주는 묘한 매력 등이 강렬한 붓 터치로 흐르며 화폭 안을 가득 메운다.

막상 그림의 배경이 된 길에 마주해 보니 내 감동보다는 슬펐다.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길 한복판에 캔버스를 세우고 흔들리는 밀밭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거다. 그 당시 고흐는 많은 불안과 우울, 고독감에 휩싸여 몸과 마음, 정신마저 온전치 않았다. 이런 환경 속에 이 드넓은 허허벌판에 혼자 앉아 날으는 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출렁거리는 밀들의 스산한 소리만을 들으며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생각에 참 외로웠겠다 싶었다.

반 고흐는 화가가 되기 전 목사인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배웠다. 그가 많은 날을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릴 때 말씀과 기도에서 좀 더 의존하였다면 아마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아픔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갖도록 해 줬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 2025년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고, 어떻게 극복했었나? 그때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 2025년 남은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마무리를 잘해 보자.

다음 여행은 또 하나의 반고흐 루트가 있는 남프랑스로 정했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노원(蘆原)을 바이블벨트(Bible Belt)로” 기도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길을 만드는 시간이다.” 등산길은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 밟고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따라 밟고, 그렇게 이어져 길이 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획을 긋는 사람은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민족을 살리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과 가나안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길을 누가 만드는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길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이게 되겠나 싶습니다. 길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지속해 보십시오.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나중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바로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며 이런 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노원(蘆原)이 ‘학원’으로 유명한 동네가 아닌, 미국 남부 지역에 ‘바이블 벨트(Bible Belt)’를 이룬 것처럼 서울 노원이 복음주의 심장부인 ‘바이블 벨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잘시키고 싶은 부모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동네, 그 중심에 성서대학교교회와 한국성서대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대학교교회가 가까워서 좋은 동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만듭니다.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바로 그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지난 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새로운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37

일기예보 김장식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많고
풍랑 이는 날보다
잔잔한 날이 더 많다
때로 폭우가 쏟아져도
먹구름 속에는
늘 태양이 빛나고 있지
매서운 꽃샘추위도
피어나는 꽃은 막을 수 없어
내일의 일기예보는
한때 흐린 후 곧 다시 맑음



<https://blog.naver.com/ssunymam/220317127934>

매일매일을 돌아보면 사실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더 많았고 풍랑 이는 날보다 잔잔한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런데 비 오는 날과 풍랑 이는 날에 마음을 뺏겨 맑은 날과 잔잔한 날을 잊고 지냈지 뭐예요. 폭우가 쏟아져도 먹구름 속에는 늘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삶의 날들을 보듬어 보려고요.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을 더 생각하고, 풍랑 이는 날보다 잔잔한 날을 더 생각하려고요. 비록 한때 흐릴 수도 있겠지만, 곧 다시 맑아질 거잖아요.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채워보려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일기예보는 늘 빛남이 되겠지요?

판자촌 1964 년 이만익 (1938~2012)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64호



마지못해 가는 모임 중의 하나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총협)다. 힘들게 가는 모임이 그나마 생동감을 갖게 된 이유는 모임 장소 때문이다. 지겨운 긴 시간이 끝나면 길 건너 시립 미술관과 덕수궁 미술관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강의 속에 마음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는 광복 80주년, “고향을 그리다”에 걸린 그림들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만난 집이 그림속의 판자촌이었다. 어린 시절 난 여기 살았다. 어떻게 그 장소에서 살게 되었는지는 내 결정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생생한 기억은 온갖 똥이 흐르던 청계천이다. 구정물 위로 그림처럼 다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집들이 있었다. 더 정직한 표현으로는 우리 집 변소가 있었다.

이만익은 파리에서 서양화를 익힌 작가지만 그림의 밑바탕은 지극히 한국적이다. 덕수궁에 걸린 그가 그린 3개의 그림은 다 전쟁 이후의 가난한 조국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담았다. 종점이라는 그림에 모자 쓴 여자는 버스에서 내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이 켜있는 판자집을 향해 있지는 않았다. 아마도 그 촌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나 보다.

판자촌은 어둡고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의 집들이 하나씩 모여 이루었을 것이다. 집안의 사람들만큼 집의 다리들도 힘들게 집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다. 판자촌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내가 살았던 집의 대문과 앞마당이 생각났다.

눈 오던 날, 검은 코트를 입고 눈을 털고 들어오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손으로 모자를 벗으면서 어깨에 걸친 나무로 만들어진 가방을 내려놓고 마루에 오르던 모습인데 어디 다녀오셨는지 가방에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기억은 하루 삶의 무게를 견디어 낸 거친 수염을 가진 마른 얼굴이다. 아마 내 기억 속에 판자촌의 집을 산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 할배였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가 보다.

이 그림은 아름다움이 머뭇거리고 더디게 찾아온다는 말을 생각나게 했는데 너무 조각으로 이어진 판자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 눈의 착각인지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는 마음의 욕망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림 앞에 다시 한번 머물고 싶다. 보는 것이 향기가 된다는 말이 내게도 그 모습을 드러낼까 해서...

김한식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환경실천 이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이런지
원자복합사목원아를

환경실천 이음교육

13일 '유아-초등 연계 환경실천 이음교육'을 가졌다. 4, 5세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천초교 김한식 교장이 '부모의 일상이 아이의 인생이 된다' 제목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강사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일상적 선택과 다양한 행동이 아이들의 미래 인식과 이해에 끼칠 영향을 전해 주었다. 현직 교장의 풍부한 식견과 교육 경험이 녹아든 강연에 학부모들은 크게 공감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초등학교 교육의 이해를 높여줬고 교육의 가치와 교육공동체 역할을 강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밀알반 문수란 교사]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해 든든한 나눔을 보여준 자원봉사자들



대학이런지
원자복합사목원아를

김장나눔행사

26일 '김장나눔행사'를 진행, 지역사회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행사는 7개 주민공동체와 지역 기업, 개인 후원자가 참가해 나눔을 만들어 냈다. 40명의 봉사자가 포장에서 배달까지 손을 보았고 김장은 713세대와 8개 단체에 전했는데 가구원에 맞춰 용량(kg)을 배분하는 세심함도 돋보였다. 월계의 김장나눔은 13년째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행사도 지역이 함께 만든 김장이라는 말처럼 공동체의 힘이 녹아 있었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주고받는 나눔 문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동재 사회복지사]

부모와 함께 이야기와 놀이를 즐기고 있는 영유아들.



대학이런지
원자복합사목원아를

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

27일 오픈 데이를 마련하고 '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 주제로 아이들이 하루하루 쌓아 온 놀이 이야기를 가족들과 나누었다. 각 반마다 참여형 놀이 전시로 '색깔이 톡톡, 모양이 살랑이는 하루', '가을 숲길, 우리들처럼 포근한 순간들' 등을 이어갔다.

영유아 스스로 탐색하고 만든 작품과 곳곳에 펼쳐진 놀이까지 즐기며 자녀의 성장과 즐거움을 공유했다. 부모들은 아이의 작품도 보고 놀이도 겸할 수 있어 좋다면 만족감을 나타냈다. 오픈 데이가 놀이 욕구와 교육, 실생활 활동까지 참여케 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나리반 김성연 교사]

성도들이 선진들의 고귀한 복음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대학이런지
원자복합사목원아를

순교지 탐방

11월 1일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과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순교자기념관에서는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드렸던 선진들의 고귀한 발자취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 신앙이 어떤 희생 위에서 세워졌는지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이어 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복음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까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생생히 느꼈다.

탐방 후에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성서공동체에 맡겨진 복음 선교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박호민 목사]

아동들이 박물관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탐색하였다.



대학이런지
원자복합사목원아를

뮤지컬 관람

22일 아동 29명이 역사를 K-POP으로 재해석한 역사 뮤지컬 '조선 마법사관 진준'을 관람하였다.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와 문화예술 감수성을 전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은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유산을 직접 관찰하며 흥미와 관심을 이어갔고 화려한 무대 연출과 신나는 음악이 공연된 뮤지컬 관람은 창의력과 역사적 상상력까지 확장해 준 시간이 됐다.

아동들은 '오감을 사로잡은 뮤지컬과 스토리까지 매우 흥미로웠다며 공부와 재미를 충족시켜 준 뜻깊은 날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아랑 센터장]

유아들이 크리스마스 정서를 배경으로 추억을 담는다.



상계백영어린이집

수료 사진 촬영

21일 크리스마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필그림’ 수료 사진 촬영과 현장 학습을 다녀왔다. 겨울과 관련된 장식과 풍경을 눈에 담고 손으로 탐색하였으며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양들을 이용, 초코 쿠키도 만드는 등 성탄을 고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그림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만지고 안아주며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수료 사진 촬영은 동물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새겼다. 아이들은 멋진 사진과 함께 한 해 동안 다져온 감동의 순간을 프레임으로 담아낸 시간이 되었다.

[맑은반 박미애 교사]

가족들이 함께 구경대강당에서 공룡놀이를 즐기고 있다.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가족이랑 떠나는 공룡탐험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부서는 8일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영·유아 가족 대상으로 ‘가족이랑 떠나는 공룡 탐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공룡을 주제로 한 체험존은 △공룡 에어바운스 △공룡 뼈 맞추기 △공룡 먹이 주기 △화산 폭발 체험 △공룡 라이더 등으로 활발한 신체활동과 놀이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치료,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놀이까지 경험한 기회가 됐다. 영유아에게 심리적 이완과 긍정적 감각을, 가족은 유대감과 소통을 강화해 준 시간이 되었다.

[사업팀장 최은혜]

중평초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입학 전 준비 사항을 안내중이다.



상계5동어린이집

초등 연계 학부모 교육

11일 이웃 중평초등학교 교사가 우리 어린이집을 방문, 학부모에게 ‘초등연계 학부모 교육’을 진행해 주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해야 할 실제 내용 안내 및 교사와 학부모,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 중요성 등을 전해 주었다. 이 밖에도 학교 시스템 운영과 방과 후 돌봄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화를 지속하였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현직 교사가 설명해 주어 진학에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영유아들이 김장체험 놀이를 즐기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김장 놀이

15일 김장 체험을 하였다.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들은 먼저 배추, 고추, 양파, 젓갈, 마늘, 대파 등의 식재료를 놀이감 형태로 만지고 탐색하며 각 재료의 특징과 역할까지도 익혀갔다. 사용 과정에서 ‘배추 좀 주세요’, ‘너무 매워요’ 등의 상황을 재현, 언어 표현과 사회적 의사소통까지 확장해 갔다.

특히 유아반은 자발적으로 김치 나르기, 양념 만들기, 양념 바르는 사람 등으로 영역을 구체화해 적극 임하였다. 영유아들에게 고유의 김치 문화와 흥미, 놀이를 안겨 준 시간이었다.

[신나는반 최호정 교사]

사진과 영화를 활용한 집단상담에 임하는 수강생들.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사진 & 영화 집단상담

성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9월~10월까지 총 7회의 사진 & 영화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콜라주 기법과 사진, 영화를 매개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안전하게 탐색하였다. 영화 속 인물의 서사와 감정을 나누며, 자신을 투사해 재해석하고 변화의 순간을 삶에 투영시켜 회복되도록 도왔다.

참여자나 나만의 고통이 아님을 경험하며, 연대와 회복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통합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해 개별, 집단상담, 원데이 프로그램 등으로 삶의 용기와 회복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다.

[상담사 김지수]

「성서대학동기운동」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 수 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1185만원(운영)	한국장학재단	300만원(장학)
이승찬(한국성서대학원)	1018만원(운영, 장학)	스피릿교회	120만원(운영)
탐씨엔티	1000만원(운영)	이수병(24회)	100만원(운영)
강우정, 강진(이사장)	478만원(운영)	반종원(이사)	100만원(운영)
홍종중앙교회	365만원(운영)	정취진(법인사무국)	100만원(운영)
하나님재단장학	3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김윤영 이가영 임재혁 한정화 홍상기 2구좌 최장현 5구좌 김남숙	10구좌 이만규 서문교회 1구좌 강선애 중앙성서교회 1구좌 고세정 김계순 김순애 김영미 김용술 김익자 김춘배 박혜원 안승수 이상규 이수연 한진경	4구좌 오근수 5구좌 이우근 일 반 1구좌 김효진 안애숙 5구좌 엄정호 12구좌 송천교회
1구좌 공승천 김명화 류희정 문성령 민정은 박정연 박지영 송향숙 이용철 조유민 홍성대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임수아 3구좌 권경덕		
2구좌 이현우 5구좌 김진경			
재학생 및 가족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학준 이해철 이현우 이현섭 이현지 이해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윤국 장은희 장익불 장익심 정희남 전영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윤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조현석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역한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섭 황예린 설에스더 황보혜영 손잡는교회 열매맺는교회 이예람	유미영 유익숙 유광길 이권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슬강 이예원 이용철 이유미 이윤진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이혜영 임은희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재원 정나나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소정 최수지 최인경 최현우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함미미 허춘선 강해든이 등대교회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설보경 성인선 우종엽 윤문순 이길숙 이다윤 이안나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차주엽 최은희 탁현정 황영숙 좋은교회 4만원 박인순 박주는 신은진 임수경 임수정 홍진옥 5만원 강경옥 강성훈 김기숙 김진경 남영란 남정부 남희경 박찬혁 서명주 송복순 신상훈 유양숙 이기훈 이부호 이유나 이지는 최경환 가락교회 생명의빛교회 성서밀알선교회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정원 이례장학 11만원 유선미 20만원 박예찬 백승우 22만원 성낙표	이수진 이정윤 이하람 이해정 임동화 장연정 장영철 전개화 조윤경 지중배 한승천 한정화 홍상기 홍장훈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권영진 권유주 김선미 김선옥 김성아 김승희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문송용 문혜진 박유순 송동식 신동숙 안차남 여진옥 연성희 오명미 유효진 이동훈 이만호 이미영 이선경 이선미 이소희 이소진 이윤구 이은영 이채은 이해란 임정용 장영순 전옥순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윤희 최경애 최문정 최영숙 최유승 최장호 함은애 허 정 3만원 박보병 배정숙 전희문 최정규 한선희 5만원 권오길 김명자 김희선 박인규 성정자 손미연 송희경 안종현 윤수호 이재현 이해영 정주화 정태리 10만원 장은정 58만원 황미숙 1018만원 이승찬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하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종현 김지환 김지효 김준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우 박묘서 박인혁 박주영 반우형 서광철 서하나 신 군 양승원 유성준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옥환 정현아 조성찬 진달래 최미영 허유민 2만원 강민정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김남준 김세원 김유진 김장호
5천원 김남혜 1만원 강순성 강신용 강애술 강옥경 강은혜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고재민 광미화 광원균 구분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기상혁 김가영 무 명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성애 김세현 김수연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유미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윤희 김일준 김재현 김정희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태용 김하은 김하나 김현정 김현진 김현철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궁화 남범수 남성희 노정현 노하나 노 만 류요한 류하나 류희정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윤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태익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희 배창경 배효순 백영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유미 서 용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민규 송바울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는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라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재복 오현호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1만5천원 고난홍 고성주 고성호 광자윤 구연민 국소영 김득희 김규리 김동원 김만성 김미나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재철 김정복 김중재 류홍열 박민주 박상수 박성주 박재송 박주영 박준호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인성 신기환 신성철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양연주	장성철 김윤영 나예린 박윤경 박인애 송지민 심희정 양은성 이기영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기부자 명단			
문건희 문지예 민경은 박예진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은혜 이지민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고윤정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이소연 이철희 추연진 하희수 4만원 윤혜진 정지용 5만원 구광면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재용 양단아 유미나 이길형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전영호 현우석 6만원 권순범 신지수 7만원 임환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권용준 김소희 김정숙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태용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시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김웅기 13만원 김중완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덕현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한진호 20만원 김승욱 김주아 김창원 박 선 박태수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52만원 차치우 100만원 반종원 정휘진 478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효진 송유정 유희주 호한나 3만원 구세란 권효진 박미라 박천순 안미희 유정현 5만원 박연희 이인경 월계지역아동센터 10만원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차도영 15만원 권정아 자주나 20만원 김신덕 김신덕 40만원 차 건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윤인호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교회 9천원 이경한 최순남 탁경미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1만8천원 고경숙 고미숙 권은정 김문정 김봉춘 김상은 김성은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일선A 김일선B 김지윤 김현미 김혜련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주형 박천순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안봉숙 오치숙 웅정자 윤도진 윤재필 이소정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이주현 임용택 장기영 장은정 장진희 정나영 최영태 최요한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한순애 황서린 황시은 2만7천원 김사천 선종인 3만6천원 고나경 김동석 김민자 김배열 김인자 박 선 박선하 박운유 반해빈 반해성 심화심 이경미 현호민 4만5천원 김효정 유희창 5만4천원 김현석 박태수 반세호 송재철 이정임 최선희 7만2천원 김유미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길용희 김원태 김주아 무 명 박세건 박은경 서수희 이경신 이은실 최대만 한진호 10만원 길용희 1185만원 성서대학교교회 성서선교회 2만원 금춘성서교회 3만원 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월계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삼일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2만원 반요셉 황병숙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5만원 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이해영 최영란 2만원 신영옥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100만원 이수병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김소아 진경숙 3만원 진효숙 일 반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삼례 김양권 김유벽 김인호 김천수 김혜란 김효진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서민식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유금례 유화실 이관현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정혜숙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법식 최은실 한국인재인증센터 2만원 강명옥 강상래 권소영 김미금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기숙 박명숙 박수영 박재균 서경숙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재한 이태일 이홍직 장단열 정주아 정 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한동훈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3만원 장문석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김옥례 서미혜 우남용 12만원 송천교회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안순복 40만원 박순정 300만원 하나나눔재단장학 1000만원 탐싸멘티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꿈꾸는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소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와식산업 /도새기평/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 /열방교회 3만원 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녹수교회/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사랑샘교회 /예일에드컬/천성교회 /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 /도봉산성교회/동산교회 /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성복중앙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청평교회/평안교회(신병수) 20만원 인천제2교회 30만원 (주) 주 안/한민제일교회 50만원 동서환경(주) 120만원 전하석 300만원 한국장학재단 365만원 홍콩중앙교회 지역사회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유주연 이유리 이은정 임태택 2만원 윤종찬 진양희 허성보 3만원 문유나 오윤아 5만원 이지연 7만원 김선화 35만원 오동준 소계(20251021~20251120) 81,796,165 누계(20250301~20251120) 789,573,072

한국성서대학교 11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22,144,635원)	
유니테크(대표 박순규) 10,000,000 / 강우정,장진(법인 이사장) 4,775,405 / 홍콩중앙교회(담임 정승대) 3,649,230	
스피릿교회(담임 전하석) 1,200,000 / 반종원(법인 이사) 1,000,000 / 이수병(동문) 1,000,000 / 차치우(前 법인 이사장) 520,000	
약정 후원자 (45구좌,연간납입예정액 5,400,000원)	
10구좌 길용희(법인 이사) 김선영(동문) / 5 구좌 강성훈(동문)	
3구좌 권경덕(일반) 이철희(법인 이사) / 2구좌 김선화(재학생) 이진호(재학생)	
1구좌 김현철 공승천(전원 동문) 박인혁(교직원), 김소아 문경녀 서한나 이가영 임경배 장은희 임재혁(이상 일반)	
일시납 누계(2025.3.1.~2025. 11.21) 246,198,235원 / 약정자 누계(2025.3.1.~2025.11.21) 149구좌 / 연간 납입 예정액 50,280,000원	